SK, 석유사업 부진에 화학사업 호조

2005년 1/4분기 영업이익 12.55% 감소 … 화학사업 영업이익 69% 증가

SK의 2005년 1/4분기 영업이익이 12.55% 감소한 3833억원으로 나타났다.

SK는 2004년 1/4분기에 매출 4조7638억원에 영업이익 3833억원, 경상이익 5371억원, 순이익 450억원을 기록했다.

1/4분기 매출은 2004년 1/4분기 4조1790억원에 비해 14%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2.55% 감소했다.

경상이익과 순이익도 2004년 1/4분기 5884억원 및 454억원에 비해 8.72%, 0.11% 각각 줄었다.

2004년 4/4분기에 비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.11%, 15.97% 감소했고 경상이익은 35.42%, 순익은 3.36% 줄었다.

석유부문은 외국 정유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져 재고 증가, 벙커C유 역외물량 유입에 따른 마진악화와 환율하락 등으로 영업이익이 2004년 1/4분기에 비해 62% 줄어든 961억원을 기록했다. 윤활유 사업도 1% 줄어든 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.

화학사업은 주요 석유화학제품 시황 호조와 이익개선 활동 및 중국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반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69% 증가한 278억원으로 집계됐다.

석유개발사업도 32% 늘어난 54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.

SK는 영업이익 감소와 관련해 "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석유사업의 정제마진 축소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"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4/29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